기쁨 기도 감사의 삼겹삶 먹는 인생달인 되기

(살전5:12~22)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쁨 기도 감사의 삼겹삶 먹는 인생달인 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기쁨 기도 감사의 삼겹삶 먹는 인생달인 되기'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 삶에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라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주어져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잘 꾸려 나갈 것인가가 궁금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걸 우리가 행동해야 될 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
이 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하면서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언제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과, ‘범사에’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거의.
근데 항상 해야 될 기쁨과 쉬지 말고 해야 될 기도와 범사에 해야 될 감사,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건데 언제나 해야 됩니다, 다른 것 세 개를.
그러니까 삼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 순간을 자르면.
여러분 시장에 가서 삼겹살 사다가 집에서 삶아 먹으려고 그럴 때는, 자르지 않고 통짜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아 가지고 썰 때 보면, 삼겹이 한꺼번에 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써는 칼자국 자국마다 삼겹이 같이 썰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순간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한꺼번에 겹쳐서 먹게 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쁨 기도 감사의 삼겹의 삶을 먹는 인생달인이라 이겁니다.

인생살이의 마이스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소림사에 가서 30년 동안 도를 닦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문분야마다 분야라는 게 한정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되면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식견이 생긴다고 그런 말들을 하지만, 아닙니다.
자!, 재벌의 총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자리에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벌의 총수가 돼 가지고, 기뻐하는 시간보다 염려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겁니다.
제대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많은 거예요.
영국의 왕실이 몇 백 년 가문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문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로 태어나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거예요.
한 나라를 움직이고 경영해 가는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와 똑같다 이겁니다.
뿌리가 끊겨져 잘라져 들판에서 버려진 채 말라져가는 들풀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아

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식쟁이와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안다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대화해 보고는, 정말 무식하구나, 자기들이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석학이라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범사에 대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자는 가진 게 없는 것이고, 기도가 없는 자는 뿌리가 끊긴 자이고, 감사가 없는 자는 무식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성격이 좀 낙천적이면 유리할까요?
저희 어머니 맨날 하시던 말씀이, 남자가 결혼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명랑하고 밝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아주 어머니의 며느리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밝고 명랑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러지 않으면 집안이 먹구름이 쌓인다.
이게 기질적이고 낙천적이고 명랑한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것도 좀 가까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무관한 얘기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이나 수련을 통하면 가능해 질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얘기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 노력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쁨이 발생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게.

자! 기쁨이 발생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발생하는 과정이.
스타트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마음 안에 무엇을 들여놓은 상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쁨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아! 저사람 마음에 든다, 목사님을 딱 처음 교회를 옮겨서 봤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다, 자식이든 돈이든 사업이든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

니다, 마음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은, 마음에 들여놓은 것에 대해서 바람이 생겨요.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 바람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건 마음에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들여놓은 것에 대해서 바람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깁니다, 원하는 게 생깁니다.
그 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내 사업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내가 그걸 하고 싶어 가지고, 그 종목에 그 품목을 만드는 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여놓은 거예요.
마음에 들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대로 됩니까 현실에서? 몇 번 됐습니까?
사업 때문에 진심으로 기뻤던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또 자식을 들여놨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있어 가지고, 바라는 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기쁠 텐데, 아! 이놈의 자식이 진짜 내 바람대로 돼요? 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여놓은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없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학문하는 사람도, 예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에요.
김연아, 아마 피겨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항상 기쁘겠습니까? 피겨라는 걸 마음에 집어넣고 현실에서 바라는 바가 있는데, 바라는 바는 모든 대회에서 1등하는 겁니다.
근데, 올림픽에서 1등으로 해 놓고도 1등을 못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1등을 보여 놓고도 1등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다른 모든 선수들은, 실력도 그렇게 보여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항상 기쁠 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고, 내가 함께 죽었다고 믿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같이 간다, 가야 된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십자가 너머에 마음이 넘어가면, 마음에서 좋아해서 내 마음에 들여놨던 모든 세상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다 빠져 나갑니다, 보고 있노라면.
또 그게 안 되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다 마음에서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십자가 너머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그 빛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약속에 따라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육체를 매개로 해서,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관계하지 않았습니까?
좋아하는 걸 들여놨는데, 마찬가지로 십자가 너머에 가면 성령님이 나의 감각이 돼 주셔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이 좋아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때 기쁨이 주어지는데, 내 마음 안에 들여 놓으신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이 현실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만족해지는 겁니다.
영인데 실체이십니다, 연기 같은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 마음이 만나게 되면, 내가 육체로 행동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좋아해서 들여놓은 사업하고 달라서, 사업은 오르락내리락 굴곡이 심한데, 하나님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없어요.
자식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서 마음에 들여 놓고 내가 바라는 게 많아도, 전부 말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바라는 게 많지만, 하나도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이루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들어 오셔서, 아예 내 마음자체를 장악하시면서, 바라는 게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특징이, 바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기쁘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쁨을 위해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아했던 모든 것이 다 빠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을 마음에 들여놓고, 자식을 마음에 들여놓고, 내 인생의 어떤 전성기를 향하여 내가 계획한 것을 마음에 들여놓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쁘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은 있지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기쁜데, 기쁨은 유보만 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항상 기쁨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마음 안에 안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라는 얘기는, 무엇을 요청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하라든지, 무엇을 구하는 걸 쉬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라이브 연결, 생방송이라 그러죠, 생방송은 지금 연결돼서 방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삶 속에서 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쁨을.
근데 기도는 이 기쁨이 유지되는 가운데에 삶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라이브 연결, 생방송처럼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다윗이 먹을 것 갖고 형들한테 갔다가 전쟁터로 들어가게 되고,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겁주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울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연결을 끊지 않습니다.
연결이 왜 끊어졌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북이 핵미사일을 서울을 향해 겨냥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을 때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 큰일 난 거예요.
김 정은이가 강릉 같은 데에 핵미사일을 터트릴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터트려서 자기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산업 시설이라고는.
서울에 겨냥한 거예요.
또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군함을 독도 근처에 갖다 대고 있는, 전운이 흐르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 그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세상일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끊어진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해요.
어떻게 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위기에 닥쳐요.
그러면 에쿠, 큰일이다 하고 사업이 마음에 들어와 마음을 딱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철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끊어진 상태에요.
끊어짐을 지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서 기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온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연결되면서 사업을 맞이하는 것과, 사업이 큰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골리앗한테 먹히듯이, 마음이 딱 사업에 먹혀 갖고, 마음 안으로 사업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두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는 것,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 하면, 골리앗이 있어도 골리앗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그러면 끊어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안고 골리앗에게 갑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먼저 마음을 지배해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있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끌어안고 골리앗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업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안고 위기의 가정문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위기의 사업과 십자가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내 앞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보는 거예요, 사업을 등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사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연결만 되면,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조약돌 5개를 주워라 그리고 돌려라 그리고 던져라 이렇게 지시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연결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나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잡혀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끊겨요.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골방에서도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이 일은 골방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제, 그 기쁨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세상 속에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것은, 여기서 다 나가서 이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속에는 기쁨이 유지되고 있고, 기쁨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런데 어차피 세상일도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주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세상일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 감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렇게 위기로 느꼈던 사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내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발견해 내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에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키우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신다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이게 자연환경이나 제3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뭐로 나타나나 하면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산을 보면서, 산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발견될 때 나오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셔 들일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셔 들인 하나님을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떠한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쇼크가 될 만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일들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연결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고 그 문제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굳건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를 향하게 하십니다.
이때 나는, 그 문제 속에서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왜 사업이 안 되게 하셨을까? 왜 순교하게 하셨을까? 이 모~든 범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인생살이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살이를 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석사과정을 다 떼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떼었다, 인생살이를 다 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과제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지 모르지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채질과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면, 이제 인생살이는 떼버린 겁니다.
재벌 되지 않았어도, 석학 되지 않았어도, 황실의 정말 가문의 뿌리를 이어가는 그런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도, 내 뿌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는 것이고,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아는 것이다 이겁니다.
참 지식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요, 내 삶의 현재 형편을.
실패라고 볼지 모르지마는, 또 내 머리와 내 이성과 내 지혜의 한계 안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모셔서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세상 속에서 세상일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면서, 연결이 이어져 나갈 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는 그 사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사랑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게 이렇게 병을 주셨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진짜 아는 거라는 겁니다, 석학이 되고 뭐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돼야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소멸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십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뭡니까? 예언의 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도 섬기는 이 사람들의 모양을, 하나님과의 거리가 끊어진 것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돈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돈 문제를 안고 바알에게 가서 숭배한다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니까, 돈 문제가 먼저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얘기에요, 거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 예언입니다.
끊어진 상태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자!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좋은 건 뭐에요?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문제를 주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 내면, 돈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절로 풀려 갈 겁니다.

기쁨, 기도, 감사의 삼겹 삶을 먹는 인생의 달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비록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마이스타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인생에 대해서 마이스타가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삼겹 삶을,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먹음으로

써, 인생의 달인으로 사는 복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